

THE FRONTIERS ANNUAL REPORT

# 2016 개척자들 연례보고서





## [표지이야기] “이런 여행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아체에서 자라 대학생이 된 율파(Ulfa)는  
처음에 트럭 짐 칸에 타야 한다는 말에 두려워했지만,  
길을 나선지 네시간 만에 가장 즐거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화캠프는 나와는 다른 배경과 환경의 이들과  
함께 하면서 나의 경계를 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비워 더 넓고 깊은 깨달음을 채우는  
아주 재미있고 의미있는 경험이라합니다.

## [글 순서]

2016년 주요 일정 / 3쪽

사역팀 보고 / 4쪽

아체사역 / 6쪽

평화캠프 / 8쪽

공동체 (살림터) / 10쪽

공동체 (재건) / 11쪽

재정정보 / 12쪽

감사인사 / 14쪽



## [1월]

나무숲 세움터 겨울학교(1/4~8)  
2016 발런티어 교육(1/11~15)  
사역팀 제주로 사무실 이전(1/5)  
제17기 강정평화학교(1/19-26)  
제3차 비무장평화의섬 선언대회(1/27)  
사단법인 이사회(1/31)

## [2월]

세움터 교실 1개동 증축(2월중)  
아랍이슬람 워킹그룹 모임(2/4)  
개척자들 창립 23주년(2/7)

## [3월]

아랍이슬람 워킹그룹 모임(3/5)  
아체 리논 평화도서관 프로그램(3/5-3/11)  
'평화를 향해하라' 평화의 바다를 위한  
대전콘서트(3/11)  
WFC(World Friendship Center)  
일본 원폭피해가족 샘터방문(3/14)  
높은뜻 섬기는교회-아체 도서관  
프로젝트보고(3/18)  
산돌학교 공동체 탐방(3/22)  
제18기 강정평화학교-  
구수정 선생 강연회(3/24)  
시민평화대학 모임(3/28)

## [4월]

강정 요트학교 마라도 항해(4/18-20)  
샘터 된장 담그기(4/26-30)  
강정평화영화학교(4/22-26)  
강정-오키나와 평화포럼(4/24)

## [5월]

시민평화대학 모임(5/3~4)  
양심적 병역거부의 날 행사(5/17)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5/25-27)  
제주 요트학교(5/18)

## [6월]

시민평화대학 모임(6/1)  
총회사회봉사부 협력단체 간담회(6/27)  
강정어린이바다캠프(6/8-11)  
제19기 강정평화학교(6/20-24) / 강정  
평화영화학교(6/24-25)  
제주 요트학교(6/27-28)

## [7월]

사랑방 공동체 어린이학교 평화교육(7/1)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 교회밖현장실천 프로그램(7/4-8)  
철인삼중경기대회(7/7)  
강정 평화의 집짓기(7/11-24)  
아체평화캠프 사전교육 및 산행 훈련(7/16-17)  
삼성꿈재단 도서관지원사업 협약식(7/18)  
아체 평화캠프 오리엔테이션(7/22~24)

## [8월]

아체 평화캠프(7/25-8/4)  
말레이시아 평화캠프(8/7-14)  
NARPI 대만캠프 참가(8/12~20)  
아체 3R센터-여성위생/환경 워크숍(8/14)  
멜리사(미국)자원봉사자 합류(8/19)  
섬들의 연대 대만 캠프(8/24~28)

## [9월]

아체WS 김원중 형제 평화기행 다큐보고회(9/5)  
강정 평화컨퍼런스(9/5)  
'꿈장학재단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비 신청  
(9/13)  
2016 대만 평화캠프 보고회(9/19)  
제주시 평화축제 (9/29-10/2)  
인도네시아 해양훈련(9/25-10/25)

## [10월]

아체 리유니온 데이(10/1)  
2016 아체, 말레이시아 평화캠프 보고회(10/3)  
나무숲세움터 평화살이 기행(10/7-10)  
아체 발링카랑 꿈마을 도서관(10/9-10/16)  
마을기억모음전(나무숲&지역아동센터) 발표(10/14)  
판티아수안 고아원 방문(10/7)  
제주강정활동-개신교 단체모임(10/24)

## [11월]

마을기억모음전 작품전시-중앙선 국수역(11/3-10)  
아체 '꿈도서관 프로젝트' 교사훈련(11/21-12/3)  
시민평화대학 강정포럼(11/27-29)

## [12월]

삼성꿈장학재단 국외장학사업 워크숍(12/2)  
아체 꿈도서관 사업-리논/라팽 마을(12/2-27)  
제주 난징대학살추념식 행사(12/13)  
2016 후원감사 및 사역보고회(12/19)  
연례회의(12/20-22)  
공동체 격려와 나눔의 시간(12/26)



## 1. 제 13회 평화를 위한 철인삼종경기 대회

다양한 활동가와 젊은이들이 건강한 협력과 도전정신 배양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성숙과 훈련의 기회로 삼고자 매년 철인삼종경기를 경기도 일대에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21개팀 84명이 경주를 펼쳤습니다.

## 2. 교회박현장실천 프로그램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과 함께 장차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에게 현장 사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돕기 위해 평화활동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진행되는 철인삼종경기의 준비와 진행을 돕고 개척자들 사역에 대한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신대원 목사후보생5명과 학부 3명이 함께 했습니다.



## 3. 강정평화학교 (Gangjeong Peace School)

- 1) 강정평화학교 / 영화학교 / 어린이 바다캠프 / Memory Activis : 참가 학생들이 각각의 주제를 공부하고 현장을 돌아보는 프로그램
- 2) 세미나 : 추모와 기념 사이-베트남의 전쟁 기억과 한국의 전쟁 기념 / 박동운 선생님의 조작간첩 고문피해생존자 / 김종대 국회의원의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국가 안보



## 4. 섬들의연대 (Inter-island solidarity for peace)

- 1) 오키나와대행진 참여 : 카야(Kaia) 간사가 참여해 오키나와의 역사를 배우고 기지 반대운동에 함께 했습니다.
- 2) 대만평화캠프 : 2016년 평화의 바다 섬들의 연대 대만국제캠프에 참가하여 대만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누고 지역내 평화적 연대와 협력을 옹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3) 이시가키섬 방문 : 일본 이시가키 섬을 방문해 강정평화학교 참가자 및 2017 평화의 바다 캠프 주최 측과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4) 난징대학살 추념식 :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12월 13일 중국 난징대학살 당시 폭격기가 기동했던 제주도 대정 알프르비행장에서 제 3회 난징 대학살 희생자 추념식을 가졌습니다.





## 5. 해상 운동 (Marine Peace Activism)

- 1) 수요일 카약시위 : 매주 수요일(水, 물의날)에는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에 반대하여 제주 해군기지 바다 입항로 인근에서 카약을 이용한 해상시위 및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2) Ocean Training : 제주 화순항에서 동북아시아 국경의 섬들을 방문할 평화항해단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루아오르 근해 상에서 기본 요트항해기술을 훈련하고, 170여km에 이르는 거리를 논스톱 항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6. 강정 국제팀 (Gangjeong International Team)

- 1) 영자신문 발행 : 강정국제팀과 함께 강정 영자신문에 기재할 자료를 수집하고 기사 작성 및 편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외국인방문객 안내 및 지원 : 평화의 섬 제주 강정마을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강정의 현 상황을 알리고 마을을 둘러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 7. 마가지 주택협동조합 - 제 2차 평화의 집 짓기 프로젝트 (Peace-building Project)

지난 7월 강정 평화 지킴이들을 위한 공간과 평화학교 강의장 및 숙소 마련을 위해 이동 가능한 소형주택 6동을 지었습니다. 2014년 1차 평화의 집 짓기 프로젝트와 같이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의 손으로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 8. 강정 평화만종기도 (Evening-bell Prayer for Peace)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기도 모임. 다양한 형태로 참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 1. 평화 도서관 (Peace Library)

아체 주도를 제외한 인근 지역들은 사회적/교육적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 지역 아이들은 공교육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에서조차도 관심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타인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워주는 평화도서관이 올해에도 운영 되었습니다. 현재 작은평화도서관은 아체공동체 3R센터, 아체섬 리논과 라팡마을, 탐양 발링카랑마을, 가요 바마을, 술라웨시 루마산텍까지 여섯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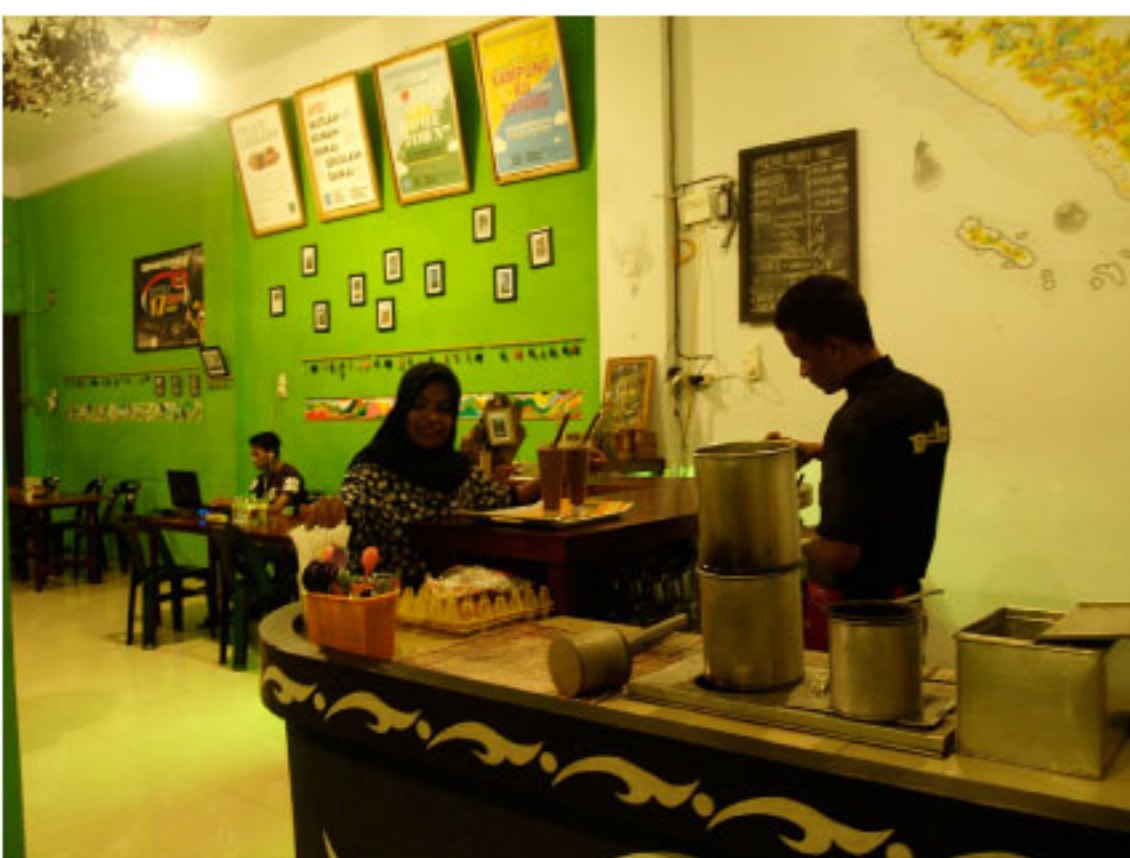
## 2. 꿈 마을 프로그램 (Dream Village Project)

평화도서관이 생긴 이래 마을을 방문하여 책을 보충해주고 아이들과 좀 더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적 불균형은 해소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올해 4월부터 '삼성꿈장학재단' 지원으로 마을의 도서관 사서선생님과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꿈선생님(인턴교사)를 모집해 훈련하고 각 마을로 투입되어 사서 교사를 지원하며 독립적 운영 역량을 기르기 위한 '꿈꾸는달'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스텝 2명과 꿈선생님 6명이 큰 틀을 만들며 아체주내 5개마을을 연중 지원하게 됩니다.



## 3. 아만 카페 (Cafe Aman)

아만 카페는 지역 젊은이들이 모여 예술적인 기질들을 발휘하고 건강한 담론들이 형성되어 가도록 토론문화의 장을 마련해 스스로 평화로운 가치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공간이며, 3R 공동체의 생활 자립의 발판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다큐영화 상영회, 여성 위생 및 건강 워크숍, 평화캠프 리유니온, 한류 스튜디오 (한복 패션쇼) 오픈, 클래스 이스파라시 행사 등의 지역의 단체와 활동그룹들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4. 목공 교실

캠ป์를 진행하다 보면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 벌목을 하고 헐값에 내다 팔다 보니 더 많은 벌목을 해야하는 악순환을 쉽게 목격합니다. 캠ป์기간 마을주민들과 함께 묘목 식수행사를 하는 것과는 정 반대로 배치되는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자연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3R 센터 내에 목공 교실을 열어 목가공과 가구 제작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단순 자원이 아니고 일상에 큰 도움을 주는 필수품인 것을 잘 아는 현지 분들은 목공교실에 큰 관심을 보여 주십니다. 현재 도서관에 들어가는 모든 서재와 책상들을 목공교실에서 제작하고, 원하는 누구나 재료만 가지고 오면 여러가지 제작 공구와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5. 판티아수안 생활관 (Panti-Asuan House)

2011년 평화캠프로 처음 인연을 맺은 아체내 생활시설로 고아 학생들과 원격지 출신의 초중고 빈곤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R에서는 격주로 이동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월 말 생일자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가장 민감할 나이의 청소년이 대부분이라 첫 관계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고대하며 만남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책과 공동체 게임 그리고 방문할 때 마다 마련하는 작은 선물들 보다는 훨씬 큰 웃음꽃이 넘쳐 납니다.



평화가 깨지는 것은 자신의 탐욕으로 마음이 가득해져 주위의 아름다운 생명들이 보이지 않을 때, 곳곳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때 내 안의 평화가 깨지고, 이웃과의 평화가 깨지고, 마을 간의 평화가 깨지고, 급기야 나라간의 평화도 깨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국제평화캠프는 평화를 일구어 가는 주체가 바로 자신 임을 체험하는 현장 참여 프로그램 입니다.

## 1. 아체 평화 캠프 (Aceh Peace Camp)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꿈은 자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족은 우리의 감수성이 세상의 숨겨진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의 소박함이 지루하고 곤궁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감수성을 살려내는 곳이 될 수 있다고 경험했습니다.

이번 평화 캠프의 주제는 “사랑스런 나의 마을 (Kampung Ku Sayang)” 이었습니다. 평화캠프를 통해서 평화를 가르치는 마을공동체와 어떻게 자족하며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기간: 7.22~25 오리엔테이션 / 7.26~8.4 평화캠프 / 8.5 후속모임과 마무리
- 캠프장소 및 참가자: 인도네시아 아체주 발링카랑 마을, 참가자 16명, 어린이 60명

“작은 배에 16명이 균형을 잡으며 긴 시간을 내리온 것도 나에게 놀라운 시간이었다. 발링카랑이 나에게 준 배움은 울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아침마다 강가의 물안개를 즐기 위해 산책을 했다. 하루는 전날 비가 많이 와서 보통 강변에 정박되는 게떡(가뱃배)이 강 중간 정도까지 떠내려가 있었다. 아침에 강을 건너 학교에 가야하는 학생들이 정말 난감한 표정으로 게떡을 쳐다봤다. 같이 난감해 하면서 이 아이들은 오늘 학교를 갈 수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중 한 학생이 작은 쪽배에 오르더니 배를 저어 게떡까지 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 사람 한사람 이동을 해서 강을 건너 모두가 등교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TV에서나 봤던 것인데, 내가 이 현장에 있다니! 난 정말 겸손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내가 누리던 수많은 은혜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학교로 가는 시간은 한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힘들게 중학교를 졸업하지만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한다. 고등학교는 도시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결혼한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슬프다. 힘내라 발링카랑!”

- 아체 참가자 율파 (Nurhayatuli ulfah)





## 2. 말레이시아 평화캠프 (Malaysia Peace Camp)

말레이시아에 있는 힐라난민학교에서 매년 국제평화캠프를 진행합니다. 평화캠프는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평화감수성을 일깨우고 역량을 길러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평화캠프에서는 서로 다른 인종, 종교와 국적의 사람들이 만나 공동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난민친구들과 친구가 되었고 서로 간에 더 나은 자아를 세울 때 함께 하는 공동체가 든든해 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 기간: 8.8~9 오리엔테이션 / 8.10~8.12 평화캠프
- 캠프장소 및 참가자: 말레이시아 암팡 힐라커뮤니티센터, 참가자 30명, 힐라학교 100명



“낯설 텐데도 저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아이들 모습이 정말 고마웠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포켓견이었어, 선입견없이 다가가려고 저 또한 노력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캠프에 참여하는 참가자였는데 선생님의 역할을 해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나 자신이 스스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한국 참가자 이예본



## 진개울 살림터

살림터라는 이름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 살기도 급급한 현실에서 자주 좌절을 느끼기도 했던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건축에 모든 힘이 쏠려서, 인원이 적어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여건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엔 각자의 삶이 자신을 넘어선 의미가 되고 싶다는 점에서 변함없이 그 이름에 우리의 정체성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희는 여전히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서 숙성 시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지공방에서는 지속적으로 작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특별한 바램을 담은 주문 생산도 가능합니다.

이제 건축의 마무리가 가까워 오면서 도약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겨울을 지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먹방(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판매)과 카페, 한지공방과 전시장, 사무실과 영상실, 목공방과 나무숲세움터의 교사실, 어른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 교육 공간과 회의실과 손님맞이 공간으로 온 쉼터가 구석 구석 가장 적절하고 활기차게 사용되도록 생각을 나누는 중입니다. 저희가 더 잘 준비되어 살림터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진정한 섬김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살림터(재건)

12월, 샘터가 화재를 당하고 재건을 시작한지 만 5년이 되는 달(月)입니다. 집 하나를 완성하기 위한 시간으로 본다면 참 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마무리 해야 할 일들이 적잖게 남아있지만 긴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진행한 건축 진행사항 입니다.

[1분기] 1~2층사이 외벽 눈썹지붕, 사무실카페 바닥 마루작업, 굴뚝 만들기, 가설제 철거, 장판 깔기, 화장실, 지층 외벽작업

[2분기] 정화조 설치, 뒷마당 흙 메우기, 1-2층 천정작업, 지층 전면 나무사이딩, 출입구 바닥콘크리트, 지층 외벽 드라이피트 작업, 비닐하우스(자재창고) 1개동 설치

[3분기] 진입계단, 다용도실 데크 및 계단, 주방 타일, 내부 계단실, 1차 도배, 전등설치, 실내 인테리어

[4분기] 비닐하우스 창고 1개동 추가, 실내 인테리어, 건축폐기물 정리, 2차 도배, 사무실 인테리어, 샘터 건물로 임시 이주, 물탱크 이동설치, 흙 되메우기

건축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강원IVF, 굿월, 김종화, 안인혜, 노혜은, 김영환, 청파교회 청년들, 타쿠마, 김기출, 김원중, 장신대현장실습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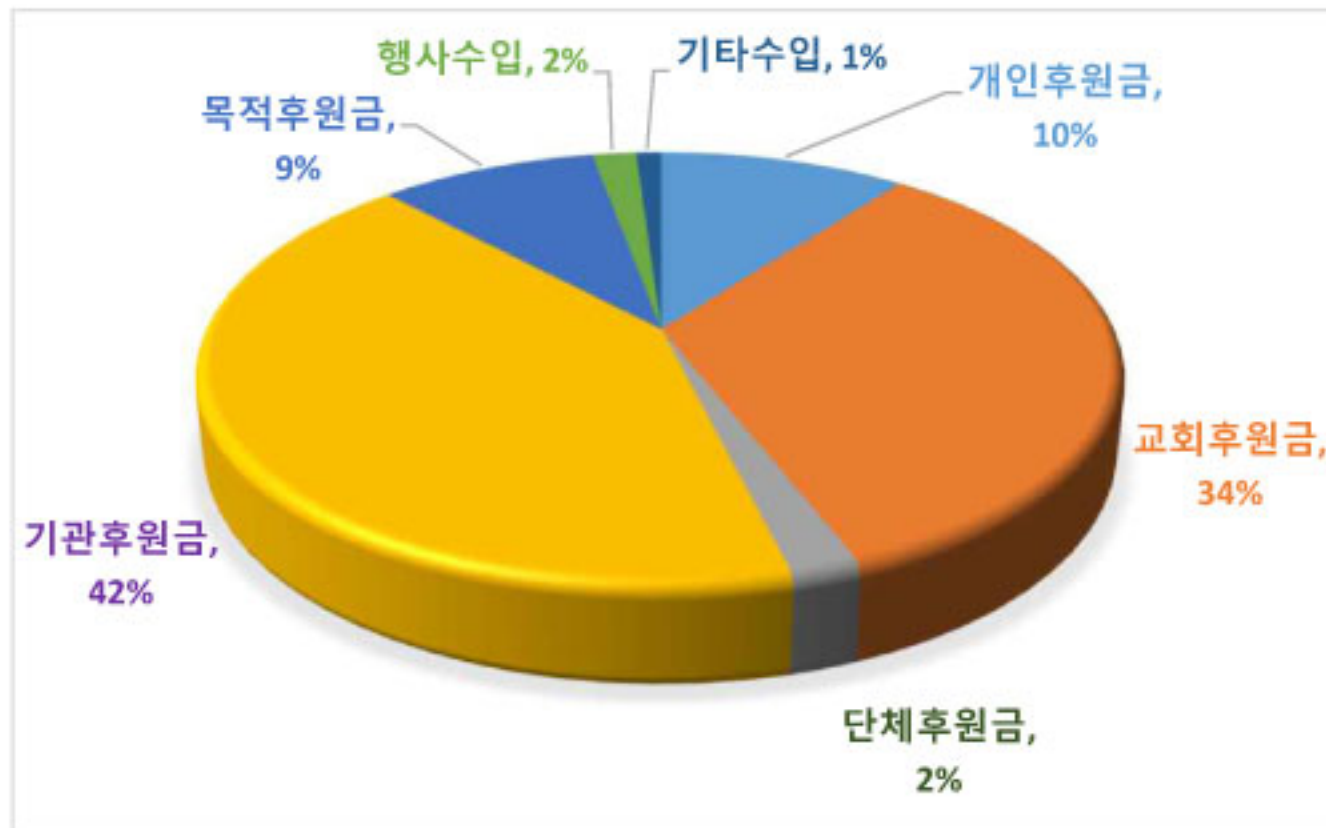
## 2016년 건축 재정보고 (1월~11월 초)

총 수입	총 지출	잔액
전년이월금: 8,274,823원	건축자재비: 32,581,160원	2016.11 기준
개인 후원: 22,755,199원	건축 차량: 3,209,620원	
단체 후원: 3,890,000원	행정처리비: 1,536,790원	
차입금: 15,458,030원	인건비: 12,670,000원	
50,378,052원	49,997,570원	380,48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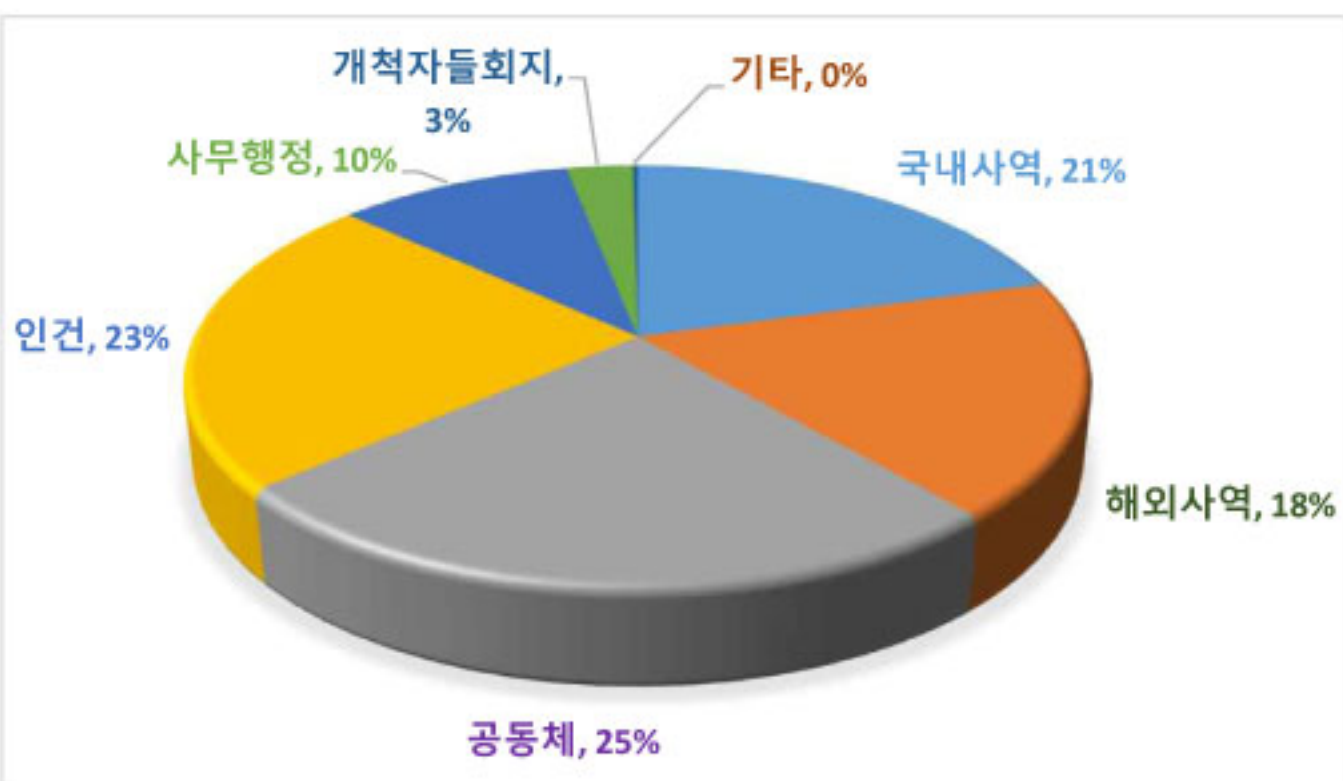


2016 개척자들 연례보고서 / 11

2016년 개척자들 살림살이 수입분포도



2016년 개척자들 살림살이 지출분포도



## 2016 개척자들 살림살이

수입		138,935,984
개인후원금	개인후원금	14,281,911
교회후원금	교회후원금	46,939,960
단체후원금	단체후원금	2,900,000
기관후원금	CMS- 개인/교회/단체	58,160,072
목적후원금	건축/아채/평화의누룩	12,669,000
행사수입	철인삼종	2,520,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1,465,041
지출		132,065,385
국내사역	항공료/홍보/임차료/장비대여비/복리후생비	27,356,370
	철인삼종/캠프	
해외사역	인도네시아/동티모르지원	23,915,563
공동체	진개울샘터지원/건축비	33,000,000
인건	스텝/발런티어/강사 인건비	30,835,000
사무행정	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보험/철인삼종	13,439,437
개척자들회지	회지 인쇄 및 발송	3,791,740
기타	환급금 (캠프잔액)	-272,725
잔액		6,870,599

## 평화의 누룩(세기모)

기간	목적(후원처)	금액
1~3월	장의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	150,000
4월	세월호 미수습자가족 후원	100,000
5~6월	한-베 평화재단 건립추진위원회	100,000
7~8월	평화캠프	82,000
9월	평화기행후원(한들)	120,000

## 2016년 아체지역 지원

단위: 인도네시아(IDR)

수입		186,470,000
한국지원		121,000,000
현지후원		30,270,000
캠프		35,200,000
지출		183,988,600
공동체	생활비/세금/공과금	24,189,000
업무	사무행정/통신/출장/홍보	17,532,000
프로젝트	평화학교/평화도서관/아만카페	32,085,000
차량	주유/수리/교통	28,571,000
인건	스텝,발런티어 용돈/의료/교육	35,310,000
캠프	캠프/후원	46,301,600
2015년이월금		-1,534,600
잔액		946,800

## 2016년 평화캠프(한국지원)

단위: 원

수입	9,659,740
개인후원금	1,830,000
교회후원금	200,000
단체후원금	600,000
기관후원금(CMS)	1,480,000
기타(평화의누룩/잡수입)	282,000
본부지원금	5,267,740
지출	9,608,100
항공료	2,540,307
홍보/물품구입/소모품/회의비/수수료	300,770
캠프지원비(아체/힐라/대만)	6,767,023
잔액	51,640

## 2016년 아체 평화캠프

단위: 인도네시아(IDR)

수입	35,200,000
한국지원	35,200,000
지출	23,959,000
캠프프로그램(평화학교/도서관정비)	9,733,000
교통/식비/재료/행정	14,226,000
잔액	11,241,000

## 2016년 대만 평화캠프

단위: 대만(TWD)

수입	34,593
한국지원	34,593
지출	34,593
캠프참가비(3인)	12,000
교통/식비/숙소/소모품	22,593
잔액	0

## 2016년 힐라 평화캠프

단위: 말레이시아(RM)

수입	3,329.10
한국지원/참가비	3,329.10
지출	3,012.95
숙소/식비	2,110.95
교통비/통신비/후원금	902.00
잔액	316.15

늘 개척자들의 든든한 벅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 년 동안 우리의 기도제목은 거의 같았습니다.

“공동체 다워지기를...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사실 그동안 건축하는 과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니깐 사소한 일도 버겁게 느껴지고 해묵은 갈등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분쟁과 재난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빛나게 활약하던 시절은 오래 전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돕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연말이면, 현장에 파견되어 있던 간사들이 회의를 위해 들어와서는 눈물을 펄펄 흘리며 얼마나 힘들고 고되었는지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올해 연례회의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붙잡고 울어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아무리 호되게 몰아친 데도 봄은 기어이 오고야 말지요. 이 겨울을 보내고 나면, 완공된 샬림터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꿈을 함께 꾸는 새로운 젊은이들의 합류가 사역과 공동체에 새 기운을 불어 넣어 줄 것 입니다. 생명의 땀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후원자님들의 일상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샬림터 (허철, 김민정, 윤호숙, 우노, 한명훈, 조정래)

저희들의 한 해를 돌봐 주신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흠어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도 저희를 늘 기억하시고 무언가 나누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또한 샬림터의 식구들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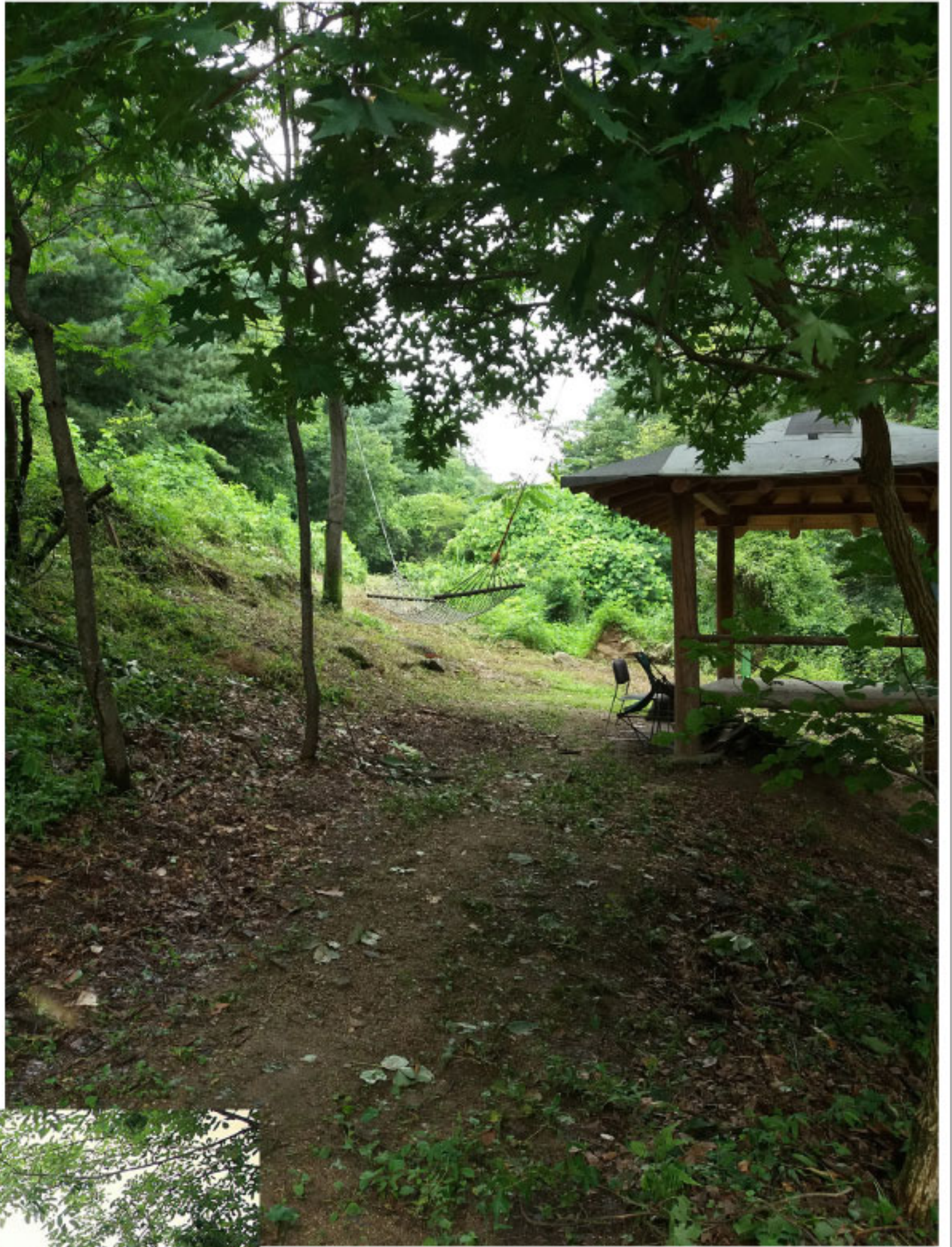
사무국 (김광일, 정수연, 이선화)

사무국 간사들은 다양한 행정 지원과 현장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원자분들과 연결되는 소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센터 건축 여건상 담당간사들이 모두 다른 공간에서 일하느라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에 들어앉아 서로 간 열정도 불어일으키고 부족함도 매워가는 새로운 일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읊조 양으로 함께 해 주셨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 기운으로 힘차게 내딛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추고와 격려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팀 (송강호, 카야, 주현중, 멜리사)

올해 사역팀은 제주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한된 인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평 공동체가 다시 복원되어서 사역팀의 활동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활동 인력도 더 보완되어 더 다양하고 균형 잡힌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다양한 사역현장들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교육과 훈련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평화 활동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실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The Frontiers 사단법인 개척자들

[www.thefrontiers.org](http://www.thefrontiers.org) / [korea@thefrontiers.org](mailto:korea@thefrontiers.org) / 031-771-5072, 031-773-1777

## 샘터공동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식곡길 153 (12580)

## 제주공동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53 (63563)

## 인도네시아 아체공동체

Jl. Peukan Bada-Ulee Lheu, Dsn. Kp. Banda, Gampong Lam Lumpu, Kec. Peukan Bada, Aceh Besar NAD, Indonesia (23351)